

## 꿈을 되찾게 해 준 깨달음

문 정현

뜻뜻한 새내기로서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 저녁. 시원섭섭한 마음을 이끌고 학교 앞 사거리 호프집에서 열린 종강총회에 학과 동기들끼리 모였다. 서로 맥주잔을 맞대며 건배하는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의 뜨거운 화젯거리 중 하나는 단연 '전공 선택' 이야기였다. 자유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지 두 학기가 눈 깜짝할 새 흘러가 어느새 제1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은 경영학이나 경제학과를 희망 학과로 꼽았다. 경영이나, 경제나 둘을 놓고 편을 갈라 어느 과가 더 좋은지 침을 튀겨가며 설전을 펼치는 광경도 벌어졌다. 그 사이에서 나는 홀로 행정학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들 의외라는 눈치였다. 극심한 취업난 탓에 상경계열 전공이 아니면 웬만한 기업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을 부모님, 선배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우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경계열이 아닌, 그것도 취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정학과로 가겠다는 나를 의아스럽게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공직자가 되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공정책을 직접 설계해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인지 행정이론, 정책학 등의 전공수업시간만 다가오면 즐거웠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정책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그 중에서도 학계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 교수님의 수업이 특히 인상 깊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면서 행정가로서 가져야 할 '자질'도 잊지 않고 강조하셨는데, 그 자질에는 청렴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덕분에 장차 깨끗하고 훌륭한 공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점차 확고히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수업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들었던 그 교수님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이었다. 전공 교수님들 중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교수님이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랐다.

하지만 그 이듬해 돌아온 것은 혐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 기사였다. 아마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실망감과 허탈함에 한없이 무기력해진 것이 말이다. 그동안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를 바르게 디자인해보겠다는 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여태껏 믿고 따르던, 멘토로 생각했던 분조차 이렇게 되자 상황은 달

라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 길이 내가 가야하는 길이 맞을까'라는 회의감이 마음속에서 잉크 방울마냥 건잡을 새 없이 번져나갔다. 이는 곧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다수의 학과 동기들처럼 상경계열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학업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피하듯 서둘러 군에 입대했다.

군대에서는 복잡한 생각은 잠시 뒤로 하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그러던 와중, 부대 내 사이버식정보방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반부패 청렴 사연 수기'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다. 청렴 사연 수기라,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동시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샘솟았다. 그동안 청렴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아니면 가슴 속 한 구석에 묻어둔 나의 꿈이 떠올라서였을 지도 모른다.

왠지 모를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 수기 당선작들을 차례차례 읽어 내려갔다. 옆에 있던 선임이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냐고 핀잔을 줄 정도로 몰입했다. 그림이나 사진 한 장 없이 글자로만 뽁뽁이 채워져 있는 줄글을 그렇게나 흥미롭게 탐독한 것은 실로 오랜만이였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경찰관, 소방관, 요양보호사, 열차승무원 등 여러 공직자부터 일반인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공무원의 승진청탁과 관련한 사연이었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청탁'을 하지 않아 번번이 승진에서 미끄러진 사연의 주인공. '그 분'께 성의 표시를 하라는 선배의 조언에 못 이기는 듯 했지만 결국 청탁을 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비록 자의가 아닌 접촉사고라는 타의에 의해 그리된 것이지만,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 정도(正道)가 아닌 편법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훗날 '그 분'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아마 그 날 사고 없이 무사히 청탁에 성공했다라면, 사연의 주인공은 오늘날 TV 뉴스에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 중 하나로 등장했을 것이다. 그녀가 차들로 꽉 막힌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간단하지만 의외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깨달음. 바로 이 깨달음이 비단 이 사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렴 사연 수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공통점이였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간과해 온 것이기도 하다. 옛 교수님의 사건을 겪은 이후, 각종 비리와 부패로 구설수에 오른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비관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 저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과연 내 꿈을 제대로 펼칠 수나 있을까, 혹은 나도 저렇게 물들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어땠을까. 사연을 통해 알 수 있듯 부패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탄로나 사고를 당하기 마련이다. 절망하고 비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행운이라 여겨야 하지 않을까. 결국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였던 것이다. 내 꿈이 흔들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비록 이 수기들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청렴의 빛을 품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점차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최근 시행된 '김영란 법'으로, 한동안 온 사회가 시끄러웠다. 혹자는 부패를 방지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 피곤하게 일상생활을 일일이 규율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하는 청렴의 빛들, 그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간혹 부딪칠 수 있는 시련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 역할을 청탁금지법인 김영란 법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국민들이 바르고 깨끗한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도 해주어 진정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직하고 청렴한 우리 사회의 별들이 늘어나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은하수를 이루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나 또한 되찾은 꿈을 이루어 그 수많은 별빛들 속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